

사전경기 컬링·스키점프... 올림픽 성적 족집게 될까

평창올림픽 G-1 평창은 지금

컬링 믹스더블
장혜지·이기정 “패기로 메달도전”

스키점프
김현기·최서우 ‘6번째’ 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대한민국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대표팀 장혜지(왼쪽)와 이기정이 지난달 4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훈련을 펼치며 스톤을 투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편대가 지난해 12월 21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 경기장 상공에서 레인폴(Rain Fall) 기동을 하고 있다. /공군·연합뉴스

전 세계인의 ‘겨울 축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사전경기로 힘찬 출발을 알린다. 컬링과 스키점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평창올림픽은 오는 9일 개막해 25일까지 총 16일간 펼쳐진다. 15개 종목, 102경기에서 메달 레이스가 펼쳐지며, 개막식은 9일 오후 8시에 열린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의 시작은 개막식이 아니다. 8일 첫 예선을 앞둔 컬링과 스키점프가 있기 때문이다. 컬링은 젊음, 스키점프는 노련함을 무기로 3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의 포문을 화려하게 열 계획이다.

◆“젊음·패기 앞세운다” 컬링 믹스더블
가장 먼저 치러지는 경기는 컬링이다. 8일 오전 9시 5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리는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1차전 4경기가 평창올림픽의 공식적인 첫 경기다.

컬링 믹스더블은 남녀 1명씩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른다. 이 종목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올림픽에 데뷔하는 신설 종목으로 한국과 중국, 캐나다, 스위스, 미국,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까지 총 8개 팀이 출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혜지-이기정 조가 핀란드의 오나 카우스테-토미 란타메키 조와 예선 첫 경기를 치르고, 오후 8시 5분에 중국의 왕루이-바더신 조와 예선 2차전을 벌인다. 중국 팀은 지난해 세계선수권 동메달을 따낸 강호로 접전이 예상된다.

예선은 참가팀 모두 한 번씩 겨뤄 누적 승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상위 4개 팀은 플레이 오프로 우승팀을 가린다.

장혜지와 이기정은 “젊음이 강점”이라며 “패기를 앞세워 메달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컬링 믹스더블에 출전하는 팀 중 가장 어린 두 사람은 홈그라운드

서 치러지는 만큼 ‘편안함’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예상했다.

첫 상대인 핀란드는 반드시 잡겠다는 생각이다. 공고롭게도 핀란드의 토미 란타메키는 평창올림픽 전체 엔트리에서 후보 선수를 제외하면 최고령 타이틀을 가진 백전노장이다.

컬링은 8일부터 11일까지 하루에 2경기씩 매일 열리기 때문에 체력 및 시차 적응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핀란드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만큼 장혜지-이기정 조의 기본 좋은 출발이 예상된다.

두 사람은 “경기 일정이 빠듯해서 체력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면서 “베테랑 선수들이 많지만 올림픽 믹스더블이 처음인 건 모두 같다. 패기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자신했다.

◆6번째 올림픽, 베테랑의 힘...스키점프
이날 오후 8시 15분에는 스키점프 경기가 치러진다.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스키점프 남자 노멀힐 개인전 예선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스키점프의 개척자로 불리는 김현기와 최서우가 출전한다. 이들은 평창에서 6번째 올림픽을 치른다. 이 기록을 가진 한국 선수는 동·하계를 통틀어 단 3명뿐이다. 비상 이규혁이 앞서 기록을 세웠고 김현기와 최서우가 이번 출전으로 타이틀 달성한다.

두 사람의 목표는 결선 1라운드 진출 이상이다.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결선 1라운드에 올랐던 두 사람은 30명이 겨루는 최종라운드 진출엔 실패했다.

메달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흠이점이 있기에 지난 대회보다 나은 성적을 기대

하고 있다. 강원도가 고향인 김현기는 “조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기 쉽지 않은 일이다. 기회를 잡아 영광”이라며 “횡계는 제 고향이기도 하다. 더 뜻깊다”고 했다.

결선 출전 인원은 총 50명이다. 월드컵에서 상위 10명 안에 든 선수들은 오는 10일 오후 열리는 결선에 직행한다.

/김민서 기자 min0812@metroseoul.co.kr

“설에 그리워지는 영화 됐으면... 시리즈 명맥 잇고파”

스타인터뷰 영화 ‘조선명탐정’ 김명민

“이제는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겼죠. 우리만의 잔치를 한다기보다 관객이 원해서 만든다는 기분이 들어요. 시리즈가 4, 5탄 뒤로 갈수록 책임감이 더 강해지겠죠. 이전 시리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요. 설 연휴만 되면 그리워지는 시리즈가 되었으면 해요.”

최근 종로구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김명민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한 시리즈의 명맥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한국형 탐정 시리즈물의 포문을 연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2011)에 이어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2015)까지 매년 설 연휴에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다. 이번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8일 개봉)은 전작들에서 다뤘던 소재와 다르게 과학수사라도 풀리지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스틸컷. /쇼박스

않는 초자연적 현상을 다룬다.

“조선명탐정2가 원작의 부재로 인해 드라마적인 부분이 미흡했다고 판단하셨는지 이번 시리즈는 감독님이 확실하게 드라마적인 부분에 욕심을 내셨던 것 같아요. 플롯은 기존대로 가져왔지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흡혈귀라는 소재를 선택해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1,2탄을 답습한 채로 똑같은 트릭으로 간다면 보

‘김민’ 역할로 능청스러움 연기 파트너 오달수와 8년간 호흡

“작품선택 우선순위는 ‘대본’ 완성도 높은 대본 만나 행운”

시는 분들도 심심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웃음)”

대중에게 이질적이고 반듯한 이미지로 자리잡은 김명민이지만, ‘조선명탐정’ 속 ‘김민’을 통해 중전까지의 이미지와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미 지난 시리즈를 통해 익살스러운 표정과 초철살인의 대사로 본인만의 코믹 연기를 굳건히 다진 김명민은 이번 편에 더욱 업그레이드된 능청스러움으로 관객에게 다가간다.

매 작품에서 인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며 ‘연기본좌’라는 타이틀도 생긴 김명민. 명배우답게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다 보면, ‘한 사람이 연기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변신은 대단하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캐릭터를 내세워서 인기를 끄는 작품을 일부러 선택한 적은 한번도 없었어요. 좋은 시나리오에 캐릭터가 잘 녹아있는 작품을 선택했죠. 우선순위는 늘 ‘대본’이 재미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놀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탄탄한 완성도의 대본을 만난다는 건 정말 행운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드라마 ‘하얀거탑’이 그런 작품이예요.”

김명민은 그 어떤 배우보다 대본에 충실하다. 입에 맞지 않는 대사라도 어미, 조사, 토시 하나도 바꾸지 않는다. 바꾸는 순간 캐릭터가 평면화되고 ‘김명민화’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그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오늘의 날씨

2월 8일
음력: 12월 23일

수도권 날씨
-9~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7:30 | 해질 / 18:03

연천 -15/1, 동두천 -12/2, 가평 -15/1, 파주 -15/1, 서울 -9/1, 양평 -13/2, 인천 -8/0, 수원 -9/1, 용인 -9/1, 평택 -12/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스포츠 한줄 News

▲ 북한 주도로 발전한 국제태권도연맹(ITF)의 리용선 총재 등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시범공연을 위해 7개월여 만에 다시 방한했다.

▲ 피겨스케이팅 페어 김규은이 지난 2일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친구인 피겨 페어 럽대옥에게 아이새도 브러시, 수분 크림, 립밤, 마스크팩 등을 선물했다.

▲ 질병관리본부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국가에서 들어오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입국 시부터 철저히 검역하겠다고 밝혔다.

▲ KBL이 7일 재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원주 DB와의 경기 때 몸싸움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 선수 한정원의 목과 턱을 쳐 쓰러지게 한 하승진에게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 대한축구협회가 성적 부진에 책임을 물어 김봉길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 감독을 전격 경질한 가운데 새롭게 뽑은 U-23 대표팀 감독이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지휘할 가능성이 커졌다.

▲ 농구만큼 골프를 좋아하기로 이름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 짓는 골프장이 내년엔 문을 연다.